

이주열 총재 “해외충격 대비 국내경제 대응력 높여야”

한은 BOK국제컨퍼런스

글로벌 가치사슬 범위·깊이 확대 돼 적절한 경제정책으로 안정성 유지해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3일 “글로벌 연계성 확대의 성과를 보전하면서도 부정적 영향은 줄이기 위해 해외충격에 대한 국내경제의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BOK국제컨퍼런스에서 개회사를 통해 “중앙은행 입장에서 글로벌 연계성 확대와 통화정책 운영여건이나 파급영향이 크게 달라지고 있는 만큼 통화정책 운영에 개선할 점이 없는지 살펴보고 새로운 정책수단을 개발하는 데도 힘써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구조개혁을 꾸준히 추진해 성장잠재력과 일자리 창출 능력을 높이고 경제의 체질도 개선해 나가야 한다”며 “아울러 거시경제정책의 적절한 운영을 통해 국내경제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글로벌 가치 사슬이 약화되고 은행의 국외대출도 위축되는 모습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왼쪽)가 3일 오전 서울 중구 소공로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카르멘 라인하트 하버드대 교수와 면담에 앞서 악수로 인사하고 있다. /한국은행

이 나타나고 있다”며 “최근 들어서는 무역분쟁의 영향까지 가세하면서 글로벌 연계성의 확장세가 다소 둔화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새로운 과제로는 ▲각국 경제에 대한 해외요인의 영향력 확대 ▲소득불평등 확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등을 꼽았다.

이 총재는 “글로벌 가치사슬의 범위와 깊이가 확대되면서 국제무역을 고리로 한 선진국과 신흥국 경기의 상호의

존도가 높아졌다”며 “특히 국제금융시장 통합으로 선진국의 통화정책이나 재정학적 리스크가 신흥국의 자금유출입에 미치는 영향도 커졌다”고 말했다.

또 “글로벌 경쟁 격화로 승자와 패자가 생겨났고 성장의 혜택도 균등하게 배분되지 못했다”며 “세계화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형성돼 최근 수년 사이에 일부 국가에서 보호무역 기조가 강화되는 배경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슬로발라이제이션(slowbaliz

ation·느린 세계화)’이란 신조어가 말해주듯이 글로벌 연계성의 확대가 한계에 다다랐다는 주장이 제기된다”며 “글로벌 연계성이 약화될 경우 국제분업과 기술확산이 위축되면서 막대한 조정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무역의존도가 높고 내수기반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신흥국 경제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덧붙였다.

행사 첫날에는 클라우디오 보리오(Claudio Borio) 국제결제은행(BIS) 통화경제국장과 카르멘 라인하트(Carmen Reinhart) 하버드대 교수가 기조연설을 맡았다.

클라우디오 보리오 국장은 “금융사이클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경기변동의 성격도 변화한 것으로 보임에 따라 정책당국의 대응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보리오 국장은 “미국의 완화적인 통화정책 지속으로 신흥국으로의 자금유입이 확대되고 있고 달러화 가치 하락으로 신흥국 금융기관의 레버리지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금융사이클에 대응하기 위한 통화정책 당국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고 이러한 금융사이클의 국가 간 전이의 부작용을 줄일 통화·재정·건전성정책 간 공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두 번째 기조연설을 맡은 카르멘 라인하트 교수는 “경기 대응에 필요한 정책 여력이 낮아지면서 선진국과 신흥국은 가까운 미래에 위험에 직면할 수 있는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라인하트 교수는 선진국의 위험요인으로 ▲경기대응에 필요한 정책여력 제약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탈세계화 현상 ▲저금리와 과도한 위험추구 현상을 꼽았다. 신흥국에 대해서는 ▲경기대응과 환율정책을 둘러싼 중국인민은행의 딜레마 ▲신흥국 과다부채 문제 ▲저소득국에 대한 중국의 대규모 대출 등을 꼽았다.

이 총재는 이날 라인하트 교수와 면담을 가지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미·중 무역분쟁 방향과 영향, 글로벌 부채 누증,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 등에 대한 의견을 서로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번 BOK국제컨퍼런스는 3일부터 4일까지 이틀간 ‘글로벌 경제의 연계성: 영향과 시사점’을 주제로 열린다. 올해는 무역 및 금융의 글로벌 연계성, 경제정책의 국가 간 파급효과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김희주 기자 hj89@metroseoul.co.kr

완성차 5개사 상승가도 ‘멈칫’... 국내외 판매 부진

현대차·기아차·쌍용차 수출 줄어 한국지엠, 내수 판매 감소·수출 증가 르노삼성, QM6가 내수 판매 견인



국내 완성차 5개사가 글로벌 시장 판매 감소로 좀처럼 판매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있다.

3일 완성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지난달 국내 6만7756대, 해외 28만9759대 등 전세계 시장에서 총 35만7515대를 판매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국내 판매는 9.5% 증가, 해외 판매는 11.0% 감소한 수치다.

현대차는 올해도 글로벌 경제 성장 둔화 우려 속에서 주요 국가들의 무역 갈등 등 통상 환경을 둘러싼 다양한 악재들이 대두되는 가운데 권역본부를 중심으로 신속하고 고객 지향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실적을 회복한다는 계획이다.

기아차는 지난달 국내 4만3000대, 해외 19만6059대 등 전년 동기 대비 3.4% 감소한 23만9059대를 판매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국내 판매는 8.6% 감소, 해외 판매는 2.2% 감소한 수치다.

차종별 실적은 스포티지가 3만9421대로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판매됐으며 K3(포르테)가 3만941대, 리오(프라이드)가 2만4932대로 뒤를 이었다.

한국지엠은 지난달 4만1060대로 1년 전보다 0.4% 증가했다. 내수 판매는 6727대로 12.3% 감소했고 수출은 3만4333대로 3.4% 증가했다. 올해 들어 5월까지를 보면 내수는 2만981대(-9.6%), 수출은 18만7313대(12.2%)로 전체적으로 8.6% 증가다.

한국지엠은 주력 차종들이 내수 시장에서 고르게 선전했다고 평가했다. 쉐보레 스파크는 3130대가 판매되며 작년 같은 달보다 22.0% 뛰었다. 스파크 판매는 6달 연속 증가하며 올해 들어 최

대를 기록했다. 쉐보레 말리부는 작년 동월보다 9.6% 많은 1144대가 팔리며 석달 연속 판매 증가세를 이어갔다.

르노삼성은 지난달 국내외시장에 1만4228대의 완성차를 판매했다. 전년 동기 대비 11.6% 감소한 수치다. 내수는 전년동월 대비 16.5% 감소한 6130대, 수출은 7.5% 감소한 8098대를 각각 나타냈다.

다만, 내수 시장에서 르노삼성의 대표 모델인 QM6가 전년 동월과 같은 2313대를 기록하며 판매를 견인했다.

쌍용차는 지난달 판매 실적이 내수 1만106대, 수출 2232대(CKD 포함) 등 총 1만2338대로 전년 동기대비 4.6% 감소했다. 다만, 내수 판매는 코란도 등 신차 효과에 따라 작년 동월 대비 4.1% 증가했으며 올해 3월 이후 3개월 연속 1만대를 돌파했다. 수출의 경우 라인업 개편이 진행되면서 2232대가 판매되며 전년 동기대비 30.9% 급감했다.

쌍용차는 “수출은 현재 라인업 개편이 진행되고 있어 작년 동월 대비 감소했지만, 코란도 해외 론칭을 앞둔 만큼 점차 회복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양영문 기자

미래에셋대우, 퇴직연금 수수료 “업계 최저 수준 인하”

금액구간 따라 인하폭 최대 30%

미래에셋대우는 3일 퇴직연금 수수료를 업계 최저 수준으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기존 수수료를 대비 인하폭은 금액구간에 따라 최대 30%에 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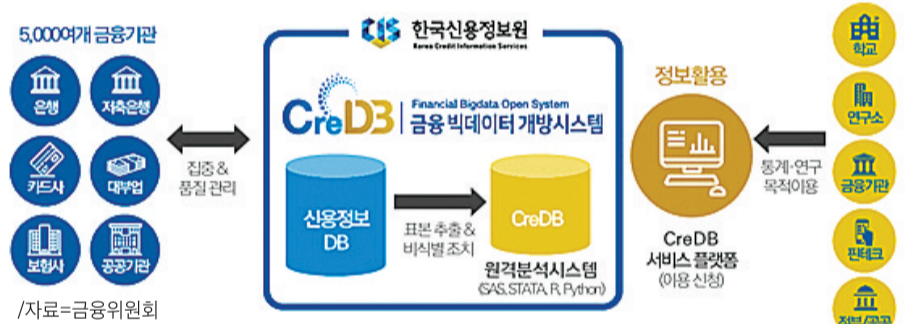
미래에셋대우 관계자는 “190조원까지 성장한 퇴직연금 시장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익률을 바탕으로 한 자산증대와 고객 신뢰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판단 하에 수수료 인하를 단행했다”며 인하 배경을 밝혔다.

주요 변경내용은 확정급여형(DB)의 기본 수수료율 인하와 DB·확정기여형(DC)의 장기할인을 상향이다.

먼저 DB 기본 수수료는 금액구간을 세분화하고 새로운 수수료율을 신설했다. 50억원 미만부터 3000억원 이상까지 금액구간을 10개로 구분해 수수료율을 차등한다. 100억원 미만의 수수료율 인하폭을 상대적으로 크게 함으로써 모든 가입법인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손영지 기자 sonumj301@

〈금융 빅데이터 개방시스템 구조도〉



4000만명 신용정보 DB, 기업에 개방

‘금융 빅데이터 인프라’ 오픈 행사 표본DB 시작으로 교육용 등 확대

앞으로 대형 금융회사와 학계, 창업 기업도 4000만명의 신용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오는 4일부터 은행, 카드, 보험 등 금융권에 모인 데이터를 공개하고, 연말에는 데이터 거래소도 마련해 결합 분석한 금융데이터도 사고 팔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금융혁신을 위한 아이디어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대량의 데이터를 이용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과 함께 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 빅데이터 인프라’ 오픈 행사를 열고 금융분야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을 위한 세부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신용정보원은 금융 빅데이터 시스템을 통해 5000여개의 금융회사로부터 받은 4000만명의 신용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개방한다. 개방은 표본DB를 시작으로 교육용DB, 맞춤형DB로 확대할 계획이다.

표본DB는 일반신용, 보험신용, 기업신용 등 민간 수요가 많은 항목을 샘플링(5%, 약 200만명) 후비식별 처리한 데이터다. 신정원은 우선 은행 카드사

가 보유한 일반신용 DB를 개방하고 보험신용 DB와 기업신용 DB는 하반기 중 개방한다.

교육용 DB는 데이터 전문가 양성을 위한 DB로 하반기에 개방된다. 실제 데이터는 아니고 통계적으로 특성이 유사한 가상의 재현데이터다. 맞춤형 DB는 이용자의 분석 목적에 따라 정보를 추출한 데이터를 말한다.

내년 상반기에 개방하는 맞춤형DB는 이용자의 분석 목적에 맞게 정보를 추출하는 서비스다. 이용기관이 선택한 항목, 조건에 따라 샘플링비율을 표본DB보다 확대해 빅데이터 분석의 활용을 높일 계획이다.

금융보안원은 데이터 거래소를 마련해 공급자와 수요자가 비식별정보와 기업정보를 거래할 수 있도록 한다. 데이터 거래가 가능해지면 다양한 이종산업간 융합이 가능해진다. 예컨대 데이터 거래소에서 보험사의 차량 사고처리 정보를 구매해 자동차 회사의 차량별 안전장치 정보와 결합시켜 안전장치 기능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내는 방식이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금융분야 빅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하고, 6월 중 신용정보법 등 데이터 경제 3법이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나유리 기자 yu115@